**사무엘(상하)** 1/1/2018 updated

**배경**: 이 책은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며, 그 전환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, 구약을 그리이스어로 번역할 때 (이를 “칠십인경”이라 함) 두 권으로 나누어졌다. 이 책은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제목이 붙어졌다. (특기할 만한 사항은 사무엘의 출생, 성장과 소명은 기록하고, 사울과 다윗의 출생과 소명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이다.)

**저자**: 알려지지 않았으나 솔로몬이 죽고 왕국이 분열된 이후(주전 930년)의 인물로 보는데,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고 있는 기록들 (예: 삼상 11:8) 및 “유다 왕”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 등 (삼상 27:6) 때문이다. 저자는 사무엘, 사울과 다윗의 일생과 그 시대에 관한 기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.

**주제**: **왕권과 언약**. 사무엘서의 기록은 이스라엘 왕조의 건립과 그 역사적 의미 및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에서 본 왕권이 갖는 신학적 갈등에 관해 설명해준다. 각 인물의 일어남과 쇠함, 그리고 왕국의 역사가 언약의 배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.

**개요**

1. 이스라엘 왕조의 발흥과 사울 왕조의 쇠락 (사무엘상)

가. 사무엘의 소명과 엘리의 퇴조 (삼상1-4장): (한나의 기도, 2:1-10)

나. 블레셋의 퇴락과 언약궤의 등장 (5-7장)

다. 사무엘의 쇠함과 사울의 등장 (8-12장)

라. 사울의 쇠함과 다윗의 등장 (13-삼하 1장)

1) 사울의 범죄 (13-15)

2) 다윗의 기름부음과 승리 (16-17): 골리앗(17)

3) 다윗의 도피생활 (18-27)

4) 다윗의 승리와 사울의 최후 (28-31장): 다윗의 애가 (삼하 1:17-27)

2. 다윗 왕권의 발흥과 퇴조 (사무엘하)

가.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함 (1장)

나. 다윗의 왕권의 발흥 (2-10장): 언약궤 (6), 다윗 언약 (7)

다. 다윗 왕권의 퇴조 (11-24장):

1) 다윗과 밧세바 (11-12)

2) 아들들(암몬과 압살롬)을 잃음 (13-20),

3) 용사들 (21-23): 다윗의 노래 (22)

4) 인구조사 (24)